

## [ 국 어 ]

해설 위원: 오 대 혁 교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공무원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옷돈, 위어른, 윗옷                      ② 윗배, 윗쪽, 윗마을  
③ 윗니, 윗입술, 위층                      ④ 윗넓이, 옷목, 윗자리

1. [정답] ③

[표준어] 난도 下

‘위’를 뜻하는 말은 ‘윗’으로 통일하여 쓰되,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올 때에는 ‘위’로 쓴다. ‘윗니, 윗입술, 위층’이 맞다.

&lt;오답 피하기&gt;

- ① 위, 아래 구분이 없는 것은 ‘옷’으로 쓴다. ‘옷어른’이 맞다.  
② 된소리가 왔으므로 ‘위쪽’이 맞다.  
④ 위, 아래 구분이 있는 말이므로 ‘윗목’이 맞다.

2.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틀린 것은?

- ① 그는 절호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② 싫던지 좋던지 간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③ 기다리던 해가 뜨자 급세 주변이 환해졌다.  
④ 경찰이 오자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2. [정답] ②

[한글맞춤법] 난도 下

과거 회상은 ‘던’이 쓰이지만, 선택의 경우에는 ‘든’을 써야 한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이라고 써야 옳다.

&lt;오답 피하기&gt;

- ① ‘이/히’를 붙여 부사를 만들 때 ‘~하다’를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접미사 ‘-이’를 붙이는 것이 맞다.  
③ ‘금시(今時)’를 줄인 표현으로 ‘금세’가 맞다.  
④ ‘뜨이게’를 줄인 표현으로 ‘띄게’가 맞다.

3.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그V보다 좋은V방법은V없는V것V같다.  
② 집에서V부터V학교까지V한참을V달렸다.  
③ 이V곳은V내가V방문한지V일주일이V되었다.  
④ 고민을V하면V할수록V답이V나오지V않았다.

3. [정답] ④

[띄어쓰기] 난도 中

‘-ㄹ수록’은 어미이므로 ‘할수록’이라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lt;오답 피하기&gt;

- ① ‘그보다’: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집에서부터’: ‘부터’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이곳은V내가V방문한V지V일주일이V되었다.: ‘이곳’은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기간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일주일’은 7일을 뜻하는 합성어로 붙여 쓴다.

4. ㉠, ㉡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동일한 것은?

- ① ㉠ 집에 가 있어라.  
㉡ 나에게서 꿈이 있다.  
② ㉠ 해가 내일은 뜰 것이다.  
㉡ 내일의 희망이 나를 부른다.  
③ ㉠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  
④ ㉠ 물이 맑고 깨끗하다.  
㉡ 맑은 하늘에 해가 떴다.

4. [정답] ④

[품사] 난도 中

‘맑다’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④의 경우는 모두 형용사 예시이다.

맑다1. 형용사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다.

2. 형용사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햇빛이 밝다.

3. 형용사 소리 따위가 가볍고 또랑또랑하여 듣기에 상쾌하다.

&lt;오답 피하기&gt;

- ① ㉠ 명령형이 가능한 ‘있다’는 동사이다.  
㉡ 명령이나 청유 형태가 불가능한 ‘있다’는 형용사이다.  
② ㉠ ‘달’을 수식하는 ‘내일’은 시간 부사이다. 부사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 ‘은’이 붙었다.  
㉡ 격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명사로 처리된다.  
③ ㉠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 서술격 조사 ‘이다’를 활용한 ‘인’에 붙은 ‘합리적’이므로 명사이다.

5. ㉠~㉣ 중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것은?

민수: 저기 영선이가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

정희: 정말 선생님께서 ㉡오시네.

민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영선아, 너도 어서 와.

- ① ㉠    ② ㉡  
③ ㉢    ④ ㉠, ㉡

5. [정답] ①

[높임법] 난도 下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동사를 쓰는 경우를 말한다. ‘㉠ 모시고’는 ‘선생님을’이라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 쓴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lt;오답 피하기&gt;

- ②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있다. ‘오시네’는 주어진 ‘선생님께서’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썼고, 상대방을 고려한 ‘해체’의 ‘-네’라는 종결 어미를 취하였다.  
③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쓰였다. ‘오세요’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 ‘-시’를 쓰고, ‘-오’라는 어미를 써서 해요체의 상대 높임을 보여준다.

6. 다음 문장 중 사동 표현인 것은?

- ① 쥐가 고양이를 물었다.  
② 모닥불이 눈을 녹인다.  
③ 장난감이 잘 정리되었다.  
④ 정우에게 아름다운 경치가 보였다.

6. [정답] ②

[사동] 난도 中

‘사동 표현’이란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다. ②는 모닥불이 눈을 녹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lt;오답 피하기&gt;

- ① 주동,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쥐가 주체가 되어 행위를 하므로 주동.  
③ 주동,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피동 접사 ‘-되-’가 쓰였다.  
④ 주동,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피동 접사 ‘-이-’가 쓰였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90년생 스페인 청년 보나르도, ㉠그는 어린 나이에 ㉡아무나 조각할 수 없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장애티를 지니고 있는 그는 9살 때 처음 조각을 시작했고, 이후 ㉢자기만의 재능을 꽃피웠다. 과연 그의 천재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 ① ㉠ : 3인칭 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은 보나르도.  
 ② ㉡ : 부정칭 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음.  
 ③ ㉢ : 재귀 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은 보나르도.  
 ④ ㉣ : 미지칭 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은 천재성.

7. [정답] ④

[품사·대명사] 난도 上

어떤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의 기능과 가리키는 대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아무'는 알 수 없는 어느 곳을 가리키므로 '미지칭 대명사'가 맞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천재성'은 아니다. '알 수 없는 어느 곳'이 가리키는 대상이다.

<오답 피하기>

- ① ㉠ '그'는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대상은 '보나르도'이다.  
 ② ㉡ '아무'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고, 가리키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는다.  
 ③ ㉢ '자기'는 앞서 말한 어떤 대상을 다시 말하는 재귀 대명사로, 가리키는 대상은 '보나르도'가 맞다.

8. 한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②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가 있다.  
 ③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  
 ④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가 발달하였다.

8. [정답] ②

[국어의 특징] 난도 下

국어에는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가 없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와 같은 접속어들은 품사에서 '접속 부사'에 속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국어에는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③ 국어는 SOV 어순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  
 ④ 국어는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가 발달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9. <보기>를 고려할 때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연의 질서는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됨으로써 항구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특히 시에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 기도 한다.

- ① '산'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인간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② '피다'와 '지다'의 반복을 통하여 자연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의 위치를 통해 꽃과 화자와의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갈 봄 여름'이 작품의 앞과 뒤에 반복되면서 계절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①

[현대시] 난도 下

김소월의 「산유화」는 계절의 순환을 안고 있는 산 속에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과,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새는 되풀이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도 새로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절대고독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김소월은 극도의 절제된 언어로써 고독의 절규를 감추며 자연 현상을 관조적으로 읊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삶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색의 태도와 깊이를 더하게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산'은 <보기>의 표현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자연이 피고 지는 꽃이 계속되는 영속성을 드러낸다.  
 ③ 화자와의 거리를 표현하면서 고독의 세계를 드러낸다.  
 ④ 계절의 순환을 드러낸다.

※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노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겹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 이었 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 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 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중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웅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중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채리라!…….”

윤 직원 영감이 중수더러 곱곰이 훈계를 하던 것임니다.

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 정신을 채리야 헐 것이 니가 암만하여두 네 아

우 종학이만 못히여!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 히  
여서, 너치름 허랑허지두 았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 년이며  
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 나

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쩌들어 나머년 그놈은 지 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 적……  
목적헌 경부가 되야 각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 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각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야야 았겠나……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 서장인  
디, 형 놈은 게우 군 서기를 땡기구 있담! 남부끄 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년, 느  
털 종구 느털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기 아  
등아등 잔소리를 허년 것두 다 느 털 위히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았어야! 알아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겼어! 그놈이 어려서버텀두

위너니 나를 자별허게 따르구, 재주두 있구 착실허구, 커 서  
두 내 말을 잘 듣구……. 내가 그놈 하나년 꼭 믿넌다, 꼭 믿  
어. 작년 울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허피 쓰기는 허닝  
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게다 대머 는 안 쓰는 심이  
지. 사내자식이 너처럼 허랑허지만 말구 서, 제 좇대만 실행  
양이면 돈을 좀 써두 괜찮은 법이 여……. 그리서 지난달에두  
오백 원 꼭 쓸 디가 있다구 핀치히엿길래, 두말 았고 보내 주  
었다!”

- 채만식, 태평천하

10.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 직원 영감의 아버지는 화적 폐에게 죽임을 당했다.
- ②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이 ‘경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③ 윤 직원 영감은 ‘군 서기’로 일하는 종수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종수는 윤 직원 영감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이이다.

#### 10. [정답] ④

[현대소설] 난도 中

윤 직원 영감이 종수에게 군서기에 머물 생각을 말고, 군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훈  
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 부분의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  
은 건넌방 고 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웅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  
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라는 표현에 보듯 둘은 심리적으로 썩 가  
깝지는 않은 듯이 묘사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앞 부분에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된다.

② 윤 직원 영감은 “목적헌 경부가 되야 각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라고  
하여 경부가 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다.

\* 경부(警部): 대한 제국 때에, 경시의 아래, 경부보의 위에 있던 판임 경찰관.

③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게우 군 서기를 땡기구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과 같은 표현으로 통해 윤 직원 영감이 ‘군 서기’로 일하  
는 종수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 대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 ② 인물의 구어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발화의 양을 달리하여 인물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11. [정답] ③

[현대소설-서술상 특징] 난도 中

서술자는 일제치하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윤리의식이 거의 없는 비정상적인 인  
물로 윤 직원 영감을 그려내고 있다. 호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잘못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구어 표현을 그대로 옮겨 대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② 인물들이 구사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④ 윤 직원 영감의 발화를 많이 보여주고, 종수의 말을 짧게 처리하여, 곧 발화의  
양을 달리하여 인물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2.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  
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  
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 고 비판합니다. 효  
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 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  
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 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  
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 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 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 자와 패자  
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 난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  
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 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  
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 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  
가능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 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 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 는 것입니다.

- ① 글쓴이는 경쟁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 ② 글쓴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협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서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쟁의 가치로  
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  
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2. [정답] ①

[독해내용 파악] 난도 下

글쓴이는 경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승자만을 위하는 것으로 경쟁을 이해해서  
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았  
다. ①의 진술은 잘못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표현이다.

1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 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 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 을 택했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 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러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 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 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 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 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 어야 한다.

- ① 비슷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책의 종류를 예시하여 독서의 목적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쉽고 생생한 비유로 책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13. [정답] ②

[독해-서술 방식] 난도 中

정독할 책, 다독할 책 등을 말하고, 그에 대한 예시로 만화책, 소설책 등을 들기도 하면서 독서의 목적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진술이다.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면담자 : 아까 커피 타 놓고 기다리던 분들은 오랜 단골 인가 봐요.

홍성일 : 아, 그 집은 한 30년 된 단골이여!

면담자 :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집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홍성일 : 뭐 처음에는 물건 팔러 갔다가 알게 되었지. 그 집이 외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원래 사람을 반기는 집이기도 하고.

박영자 : 그 집 아줌마가 손이 커. 정이 많다고 하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분들이 아침 먹 고, 두 분하고 함께 커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던데…….

면담자 : 그 양반들은 늘 그래. 우리가 좀 늦는 날도 있는데, 그때까지 안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더라 고. 같이 마시려고. 그 마음이 참 고맙지.

박영자 : 단순히 생선을 사고파는 사람과 손님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자기의 동생이 생선 파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홍성일 : 그렇지. 손님 그 이상의 관계지, 우리는. 거기 마당이 넓잖아. 여름에 우리는 거기서 칼도 갈 고 다 해! 그래서 칼, 도마도 그 집 창고에 다 놔두고.

면담자 : 이렇게 장사하다가 만난 인연이 참 다양하겠어 요.

이 장사의 특성상 단골을 확보하고 유지하 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성일 : 어떤 장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사는 특히 단골을 확보하는 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손님들이 모 두 뜨내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 을 모두 우리 단골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 니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

면담자 : ㉡단골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홍성일 : 뭐 생선 장사가 따로 방법이 있단디? 그저 싱 싱한 생선 제때 맞춰 와 바가지 안 씌우고 팔 았지. 남들보다 더 일찍 움직이고. 사실 내가 새벽에 구리 시장 가는 것도 생물을 사려고 일 짝 가는 거야.

면담자 : 정말 이 장사를 하려면 아주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과 이렇게 생선 팔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 안에서 정을 주고받을 때 기분 이 어떠세요

박영자 : 아이고, 말해 뭐 해? 기분 좋지! 손님들이 나와 서 물건 많이 사 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웃고! 그리고 가면 기분이 당연히 좋지.

면담자 :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홍성일 :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 을 때 참 보람이 있다고 느끼지. 꼭 오는 날인 데 우리가 안 보이면 일부러 전화도 하고 그 래. 그 사람들도 이제 보이다 안 보이면 걱정 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 또 그런 사람들은 꼭 우리한테만 사 먹는 사람 들이거든. 그러니 더 고맙지.

1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담자는 생선 상인이 손님과 겪었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박영자는 면담 과정에서 단골손님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홍성일과 박영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
- ④ 홍성일은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을 확보해 왔다.

### 14. [정답] ④

[말하기-대담의 내용 파악] 난도 下

“뭐 처음에는 물건 팔러 갔다가 알게 되었지. 그 집이 외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원래 사람을 반기는 집이기도 하고.”라는 홍성일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생선을 팔고 있는 장사꾼이다. ④의 진술은 잘못이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면담자가 관찰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② ㉡은 면담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다.
- ③ ㉢은 생선 상인이 느낀 정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④ ㉣은 면담자가 생선 상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다.

### 15. [정답] ④

[독해-문맥적 의미] 난도 下

면담자가 생선 상인이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것이다. 새로운 질문인 것이다. 생선 상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은 잘못이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 때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 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 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 래·추녀·기둥·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채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 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 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채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 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 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 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의 추이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③ 특정한 현상을 일으킨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반되는 세 가지 경험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16. [정답] ②

[고전수필] 난도 中

이규보의 「이옥설」은 실생활의 사소한 체험이 바탕이 되어, 인간의 삶의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에 대한 깨우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짙막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 평범하면서도 참 진리가 함축되어 있으며,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을 향한 설득력 또한 갖게 되었다. 즉, 정치개혁이라는 다소 무거운 제재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바로 '집수리'라는 일상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의 이치를 그대로 정치에 적용하여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자 손을 던지시 들어 가리키는데,

“저기 저 건너 동산은 ㉠ 울울하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화초가 무성하고, 나 무마다 앓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위 굽은 술 에 맑은 바람 이 ㉡ 건듯 부니 늙은 용이 서려 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의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며 그 가운데 행자 목은 음양(陰陽)을 좇아 마주 서고,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푸레나무, 포 도, 다래, 덩굴나무 ㉢ 넉출 ㉣ 휘휘친친 감겨 담장 밖 에 우뚝 솟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숲 사 이로 은 은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일리라.”

- ① ㉠ : 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서 매우 무성하다.
- ② ㉡ : 바람이 가볍게 슬쩍 부는 모양.
- ③ ㉢ :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것.
- ④ ㉣ : 여러 번 단단히 둘러 감거나 감기는 모양.

17. [정답] ③

[고전산문-판소리] 난도 下

'넉출'은 길게 뻗어 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를 가리킨다. '덩굴나무'라는 앞의 표현과 연결하여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내 버디 몇치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밧기 또 더하야 머엇히리

구름 비치 조타 하니 검기물조로 한다 바람 소리 몹다 하니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논물뿐인가 하니라

고즌 므스 일로 꺾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하야 프르느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바회뿐인가 하니라

더우면 곳 꺾고 치우면 님 디거늘

술아 너논얼디 눈서리룰모르느다

구천(九泉)에 불취 고든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논뉘 시기며 속은 어이 뵈연느다

더러코 사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하노라

(나) { 자근 거시 노피 써서 만물(萬物)을 다 비취니 밤등의 광명(光明)이 너만하니 쏘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별인가 하니라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18. 작품의 내용으로 볼 때 (가)부분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앞으로 등장할 대상들을 소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표현 기법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점층적인 시상 전개로 주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문답법과 설의법을 활용하여 지적 대상을 모호화하고 있다.

18. [정답] ①

[고전시가] 난도 中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가) 부분은 앞으로 제시할 다섯 벗에 대한 소개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종의 서사이다.

19. (나)를 통해 볼 때 (가)의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희
- ② 피
- ③ 돌
- ④ 별

19. [정답] ③

[고전시가] 난도 下

(나)의 내용이 높이 뜬 달을 말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네모 속에 '돌'이 들어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문>

○ 제1수

내 벗이 몇인가 하니 물, 돌, 소나무, 대나무로다. / 동산에 달이 뜨니 그 더욱 반갑구나. /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면 무엇하리.

## ○ 제2수

구름 빛깔이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 바람 소리가 맑다고는 하지만 그칠 때가 많다. /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물론인가 하노라.

## ○ 제3수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곧 지고, / 풀은 어찌하여 푸르려지자마자 곧 누런 빛을 띠는가? /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 ○ 제4수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떨어지는데, / 소나무여, 너는 어찌하여 눈과 서리를 모르느냐? / 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줄을 그것으로 알겠구나.

## ○ 제5수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어 있느냐? / 저러고도 네 계절을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 ○ 제6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비추니 / 밤중에 밝은 빛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내 벗인가 하노라.

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文房諸具) 볼작시면 용장 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룡(函籠), 반단이, 셋별 같은 낯요 강, 낯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댔습니다.

생 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 에다 축여 댔다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꿀물에다 축여 댔다네. (긋거리장단에 맞

말뚝이 : 취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 나고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 (새처 안에 앉는다.)

- 「봉산탈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새 원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당대 양반들의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생원’의 말을 통하여 말뚝이가 해야 할 일이 제시되고 있다.
- ③ ‘춤과 음악’을 통하여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되고 있다.
- ④ ‘채찍’을 통하여 무대 안 가상의 장소가 설정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 예예.

생 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 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 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 다가 등에 술질을 활활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 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 국 무른 메주 밟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 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 이, 모래 켠켠이, 참나무 곁곁 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 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청하

말뚝이 : 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 드문 꽃고, 깃을 푸근 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댔습니다.

생 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기둥에 비취 연목(翡翠椽木)에 금 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 자로 풀어 짓고, 처 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 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찻다 펴고 부벽서(付 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 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 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 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

## 20. [정답] ①

[고전산문·탈춤] 난도 下

‘노새 원님’은 ‘노생원님’을 살짝 뒤틀어 생원들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한 언어유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봉산탈춤 6과장

여기에 등장하는 양반은 전통성 있는 양반이 아닌 양반 계급을 돈으로 사서 얻은 양반이다. 무식한 사람이면서 유식한 양반의 흉내를 내는 모양을 풍자한 내용이다. 양반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와 몰락한 양반들의 생활상을 말뚝이가 등장하여 해학과 풍자로 신랄하게 고발한다.